FLY ME TO *THE* HOTEL

세계적인 건축가나 로컬 아티스트의 손길, 전망대보다 뛰어난 뷰, 미쉐린 스타 셰프의 환상적인 요리, 19세기의 건물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는 재미….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한 호텔 30곳.

editor LEE EUNG KYUNG

photographs HOTEL THOU MIEUX

PARIS–
HÔTEL DE JOBO
www.hoteldejobo.paris

OPEN 2016년 6월
JOSEPHINE BONAPARTE 나폴레옹 황제의 왕비였던 조세핀 보나파르트를 모티브로 디자인한 호텔이다. 매거진이나 SNS에서 조세핀 보나파르트가 '조보'로 불리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호텔 이름을 '호텔 드 조보'라고 지었다. 인테리어를 담당한 디자이너 밤비 슬로안은 룸의 벽이나 1층 테라스 쪽 텐트에 그녀가 좋아하던 장미, 레오파드 프린트, 백조를 그려 넣었다. 벽에 가득한 이미지로 자칫 어지러워 보일 수 있는 룸은 직선과 기하학이 특징인 디렉투아르 양식으로 균형감과 편안한 느낌을 살렸다. 호텔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조세핀 보나파르트 하면 떠오르는 우아함과 화려함, 매혹적인 분위기를 닮았다. 17세기 수녀원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의 고풍스러움도 살리면서 말이다.
ELEGANCE 총 24개의 욕실 모두가 마퀼타 대리석과 카라라 대리석으로 새긴 모자이크로 꾸며져 있다.
BEST LOCATION 마레 지구에 위치한다. 루브르 박물관, 피카소 미술관, 카르나발레 박물관, 조르주 퐁피두 센터 등 예술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가봐야 할 곳들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기다.
ROOM RATE 2백60유로(약 32만원)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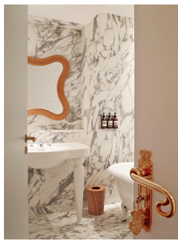
OPEN 2016년 1월
PHILIPPE STARCK 세계적인 디자이너 필립 스탁이 디자인을 총괄해 완성한 호텔이기 때문에 곳곳에서 그의 조명이나 가구를 자주 볼 수 있다. 필립 스탁의 감성에 공감하기에 가장 좋은 공간일 수도 있다. 룸에 들어가보라. 가벼운 느낌이 드는 밝은 컬러의 직사각형 나무 조각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벽면에 둘러져 있다. 여기에 필립 스탁의 조명이 더해져 분위기가 아늑하고, 섬세하게 제작한 스틸 소재의 벽걸이나 테이블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모던하고 에지 있게 만든다.
HIDEOUT 삼각형 지붕의 개폐식 유리 천장과 직사각형 모양의 수영장이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밸런스를 이룬다. 수영장 선베드에 누워만 있어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이 근사한 수영장이 보이는 리셉션 홀에서 결혼을 올리는 파리지앵도 늘고 있다. 대도시에서 느낄 수 없었던 휴식을 즐기고 싶으면 잠깐 호텔 밖으로 나가봐도 좋다. 호텔 가까이에 유럽 최대의 모래 언덕이 있는 라 뒨 뒤 필라(La Dune du Pilat)가 있다.
ROOM RATE 2백79유로(약 34만4천원)부터

PYLA-SUR-MER–
THE HOTEL HA(A)ITZA
www.haaitza.com

photographs HOTEL THOUMIEUX, HÔTEL DE JOBO, MAISON ALBAR HOTEL CÉLINE, THE HOTEL HA(A)ITZA

PARIS–
MAISON ALBAR HÔTEL CÉLINE
www.maison-albar-hotel-paris-celine.com

OPEN 2017년 1월
CÉLINE 럭셔리 호텔 그룹인 메종 알바가 세운 호텔이다. 패션 브랜드 셀린느의 본사 건물을 리뉴얼해 오픈했기 때문에 호텔 이름에 '셀린느'가 들어 있다. 셀린느가 추구하는 프랑스식 우아함을 호텔 역시 추구한다는 의미도 있다.
1923 ROOM 총 60개의 룸 중 프랑스식 우아함과 호텔이 추구하는 '생활 속의 예술(Art de Vivre)'을 가장 잘 보여주는 룸은 '1923 룸'이다. 이 룸은 퀄리티 높은 벨벳, 원목, 가죽, 황동, 대리석 소재를 적절히 사용해 럭셔리하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준다. 앙리오 & 시에(Henryot & Cie)의 아르데코 스타일 가구와 톰 딕슨의 조명도 절묘하게 어우러지도록 배치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파리의 도시 풍경을 조망할 수 있다. 호텔이 센 강과 레알 사이에 위치해 풍경 또한 환상적이다.
LORDS & FOOLS 메종 알바 호텔 셀린느는 패션을 통해서도 프랑스식 우아함을 표현한다. 스태프들은 프랑스 출신의 젊은 테일러 요앙 바루크(Yoahm Baroukh)가 만든 브랜드 로즈 & 풀스의 수트를 입는다. 스태프의 옷 스타일이 마음에 든다면 호텔을 통해 로즈 & 풀스의 맞춤 수트 서비스를 예약할 수도 있다.
ROOM RATE 2백79유로(약 34만4천원)부터



PARIS–
HOTEL THOUMIEUX
www.thoumieux.fr

OPEN 2011년 1월
SYLVESTRE WAHID 호텔 투미외의 큰 자랑거리는 셰프인 실베스트르 와히드다. 그는 알랭 뒤카스 셰프의 레스토랑 '59푸앵카레'와 '알랭 뒤카스 오 플라자 아테네'에서 일하며 실력을 키웠다. 뉴욕의 '알랭 뒤카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4년 동안 비스트로 스타일, 오트 퀴진, 슬로 쿠킹 등 요리 테크닉을 연마하기도 했다. 2005년에는 레스토랑 '오스토 드 보마니에르'를 총괄하면서 미쉐린 2스타 셰프가 되었다. 그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실베스트르'는 호텔 투미외 1층에 있다. 실베스트르에 들러 그의 환상적인 요리를 경험해보라. 실베스트르 와히드 셰프는 지중해 퀴진을 베이스로 한 창작 요리를 선보이며, 소금 하나만 해도 페르시안 블루 솔트, 히말라얀 핑크 솔트, 하와이안 블랙 솔트, 카마르그 솔트 등 다양한 소금을 요리에 따라 다르게 사용한다.
FANTASTIC DESIGNERS 호텔 투미외는 디자이너, 포토그래퍼, 패션 에디터 등 시각적 아름다움을 중요시하는 이들에게 인기가 많다. 룸에 들어가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대리석과 나무, 벨벳, 애니멀 프린트 등으로 장식된 인테리어는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인디아 마드하비(India Madhavi)의 작품이다. 파리지앵의 우아함 속에 위트를 담아냈고 시크한 노마드 느낌까지 자아낸다. 문손잡이와 키 체인은 듀오 디자이너 '엠엠파리'가 만들었다.
ROOM RATE 3백60유로(약 44만2천원)부터